

# 여름이 가도 식지 않는 학술열기

## 하반기 고승 선양 등 주제 다채로워

### 사회경제 · 심리치료 등 응용연구 눈길

한 여름을 뜨겁게 달군 여름이 한창인 8월, 불교학계는 2012년 하반기를 맞아 열리는 학술대회 준비로 어느 때보다 뜨겁다.

올해 하반기에는 오랜기간 공들여 준비하거나 새로운 시각이 선보일 것으로 기대되는 주제들이 적지 않다.

먼저 근대 고승들의 전법, 포교원력을 짚는 자리가 눈길을 끈다. 불광연구원은 10월 27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국제회의장에서 '광덕 스님의 종단활동과 대학생 전법'을 주제로 광덕 스님의 전법활동을 조명한다.

대각사상연구원은 10월 7일 구례 화엄사에서 용성 스님의 한글화업경과 화엄사를 주제로 한글 화엄경 간행과 용성 스님의 포교원력에 대해 심층적으로 접근할 예정이다. 용성 스님은 30여 종의 경전을 우리말로 옮기는 등 정진한결화에도 앞장서 왔다.

또 성철 스님 탄신 100주년을 맞아 백련불교문화재단도 9월 13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지하공예관에서 '성철 스님의 종교관'을 주제로 성철 스님의 불교를 넘어선 종교관을 다각적으로 조명한다.

청담사상연구소도 11월 둘째 주 중으로 '청담 스님의 지계사상'을 주제로 학술대회를 열 예정이다. 8월 기간 중 열리는 만해 축전을 감안하면 스님들의 행적을 중심으로 현대 불교계에 교훈을 찾고자 하는 점은 하나의 흐름으로 자리잡았다고 할 수 있다.

사회문화와의 접점을 다룬 학술대회도 눈여겨 볼만 하다. 불교학연구회는 11월 17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국제회의장에서 '불교사회 경제사상'을 주제로 학술대회를 열며, 한국명상치료학회도 9월 15일 청소년 심리치료 사례발표를 중심으로 학술대회를 연다. 이밖에 불광연구원은 9월 8일 신도교육의 현대적 방향과 내용을 점검하며 한국불교학회도 추계학술대회를 통해 한국불교의 세계화를 점검한다.

하반기 학술대회들이 모두 의미가 크지만 그 중 가장 눈길을 끄는 것은 백련불교문화재단이 11월 29일부터 30일까지 양일간 개최 예정인 국제학술포럼이다. '불교의 명상, 고대의 인도에서 현대 아시아까지'를 주제로 동국대 강강당에서 열린 예정인 학술포럼에는 전세계 10여 명 학자들이 참여할 예정이다. 노덕현 기자

## 2012년 하반기 학술대회 일정

주최	일시	주제	장소
신라학회	8월 18일	진흥왕 순수비와 창녕 관룡사	창녕 성씨 고택
한국심리학회	8월 23~25일	심리학 공정사회를 향하다	명동 전국은행연합회관, 강촌 엘리시안
불광연구원	9월 8일	신도교육의 현대적 방향과 내용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국제회의장
백련불교문화재단	9월 13일	성철 스님의 종교관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지하공예장
한국명상치료학회	9월 15일	ADHD 청소년 심리상담	서울 불광사사
한국미술사연구소	10월 6일	고구려 고분벽화	국립중앙박물관
대각사상연구원	10월 7일	용성 스님의 한글화업경과 화엄사	구례 화엄사
원각사상연구원	10월 13일	가사의 변천과 전승	서울 관문사
불광연구원	10월 27일	광덕 스님의 종단활동과 대학생 전법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국제회의장
동국대 불교사회문화연구원	10월 26일	불국사, 화엄계통 사찰이나 법사계통 사찰이나	동국대 경주캠퍼스
동국대	10월 25~26일	한글번역의 제문제	동국대 다양한 세미나실
전지불전연구소	11월 9일	한국불교와 세계불교와의 대화	동국대 문화관 학예세미나실
한국미술사학회	11월 10일	정기학술발표회	국립중앙박물관
불교학연구회	11월 17일	경제문제의 불교적 조명과 재해석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국제회의장
청담사상연구소	11월 둘째 주중	청담 조사의 지계사상	경남과학기술대
동국대 불교사회문화연구원	11월 24일	불교와 도시건축	동국대 경주캠퍼스
백련불교문화재단	11월 29~30일	불교의 명상, 고대의 인도에서 현대 아시아까지	동국대 덕암세미나실

## '기장 장안사 대응전' 보물로 지정



보물로 지정된 장안사 대응전은 범어사, 통도사, 운문사 등 주요사찰 전각과 비교분석의 기준이 될 가치가 있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문화재청(청장 김찬)은 8월 6일 부산시 기장군에 위치한 '기장 장안사 대응전(機張 長安寺 大雄殿)'을 국가지정문화재 보물로 지정했다.

'기장 장안사 대응전'(보물 제1771호)은 신라 문무왕 13년(673)에 원효대사가 창건하여 쌍계사라 불리다가, 애장왕(809) 이후 '장안사'로 고쳐 불리게 된 사찰이다. 임진왜란 때 소실된 것을 조선 인조 8년(1630) 의월대사와 인조 16년(1638) 태의대사가 각각 중창했다고 전한다.

보물로 지정되기 전 부산광역시 기념물 제37호였던 장안사 대응전은 2009년 부산대학교 현장조사 시 천장 반자에서 4건의 묵서명(墨書銘)이 발견됐다. 이를 통해 효종 8년(1657)에 중창된 이후 부분적인 수리 외에는 주요 구조부가 원래의 모습을 그대로 유지되고 있음이 알려졌다. 또 내부 단청조사(안료분석 등) 결과, 천연광물 위주의 전통안료가 잘 남아있음이 확인되는 등 건립 당시의 단청기법이 잘 유지되고 있어, 기장군 주변 범어사·통도사·운문사 등 주요 사찰 전각과 비교 분석할 만한 학술적



신라 단청기법이 남아있는 기장사 대응전 단청

가치가 있음이 확인됐다.

발견된 묵서명 중 특기할 것은 대응전 중건 시 건축 기록인 '순치삼년기종도리묵서명'(順治十三年記宗道理墨書銘, 순치 13년 종도리에 기록된 묵서명)으로 이는 부산 지역에서 발견된 가장 오래된 기록이다. 해당 묵서명은 당시 대응전 중창공사에 관여했던 승려와 전주했던 인물들의 상세한 기록이 있어 전통건축사적으로 귀중한 자료다. 또한, 임진왜란으로 피해를 입은 기장 지역을 회복하고자 장려한 불전(佛殿) 건물에 짓게 된 계기 등도 기록되어 있어 지역 불교 건축사와 향토사 연구에 소중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노덕현 기자

## 불교 안에 질병 치료법 있다

### <한국선학> 제31호에 이색 논문



불교와 현대의학의 접점은 어디까지일까? 천태지의 대사의 천태가상·주술법과 현대의학의 교차점을 집중적으로 다룬 논문이 눈길을 끈다.

조계종 교수아사리 종두 스님은 최근 <한국선학> 제31호에서 '천태의 가상법과 주술법을 이용한 질병치료' 논문을 통해 천태지의 대사가 펼친 질병치료법에 대해 자세히 다뤘다.

종두 스님은 "(차제선문), <천태소지관> (선문구결) 등에서 질병 치료법으로 호흡법, 가상법, 주술법, 의식집중, 관석치병의 다섯가지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며 "이 중 가상법과 주술법은 긍정적인 자기

암시를 통해 질병치료에 효과를 발휘하는 현대의학의 자기암시법과 비슷하다"고 설명했다.

종두 스님은 구체적으로 가상법에 대해 "(선문구결)에서 가상법은 '대소변시 병이 함께 나온다', '몸의 열화를 입으로 나오다'고 생각한다'고 생각하는 것을 강조한다"고 말했다.

스님은 "현대의학에서 보면 타장지 못한 부분도 있지만 참고해야 할 내용이 적지 않다"고 강조했다. 한편, <한국선학> 제31호에는 조계종 교수아사리 종두 스님의 '천태의 가상법과 주술법을 이용한 질병치료', 이남경 동국대 박사의 '심리치료를 위한 我에 관한 일고찰', 양정연 한림대 교수의 '담립에서의 죽음의학과 수행', 김진우 동국대 불교문화연구원 교수의 '지행론을 통해 본 선, 양명학, 사상의학의 인간론' 등이 실렸다. 노덕현 기자

## '동악미술사학' 제13집 발간

동악미술사학회(회장 최응천)는 최근 '동악미술사학' 제13집을 펴냈다. 이번호에는 △한국 금구형 금교(金鼓)의 조형과 전개(최응천) △미국소재 한국불화 조사 연구(정우택) △통일신라 금동보살입상의 유형과 특징(안현정) △경주 정혜사지 13층석탑의 양식과 특징(이순영) △고려시대 범종의 발원 계층과 주종(鑄鑄)장인이

광배) △고려시대 불교향로의 전통성과 독창성(이용진)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진하도(陳賀圖)'의 정치적 성격과 의미(유재민) △조선 궁중연향도의 특징과 성격(안태욱) △조선시대 18세기 시왕도 연구(김혜원) △근대기 불교계와 불화의 제작(최엽) 등 논문이 실렸다.

노덕현 기자

## '선문화연구' 제12집 발간

한국불교선리연구원(원장 법진 스님)은 최근 '선문화연구' 제12집을 펴냈다. 이번 호에는 학술상 수상논문으로 △'멸정건도'의 다수결 원칙을 통해 본 승가분쟁 해결의 이념(이지란) △용성선사의 선밀생수에 대한 고찰(김치은) △1930년대 불교잡지 동화의 성격과 전시동화(戰時童話)의 문제(박상란) △일본계 미국인의 여성참여와 사회참여 그리고 간화선 세계화

담론에 대하여(장은화)가 실렸다.

또 일반논문으로 △무상대사와 마조의 사법(佛法)에 대한 재고-현실적인 시공간 측면에서 접근하다(정운 스님) △'조계대사전(曹溪大師傳)'의 전의부법설(傳衣付法說) 및 불설과 반야사상 연구(김지은) △원 간섭 초기 고려 선종계의 변화와 사원 동향-주요 선종 사원의 변화를 중심으로(윤기엽)가 실렸다. 노덕현 기자

## '내 사랑 문화유산' 사진 공모전 개최

문화재청(청장 김찬)은 8월 20일부터 9월 20일까지 '2012년 헤리티지채널 문화유산 사진 공모전'을 개최한다.

'내가 사랑하는 문화유산·자연유산'을 주제로 열리는 이번 공모전은 국민의 시각으로 문화유산을 바라보고 문화유산의 소중한 가치를 느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련됐다. 디지털카메라 부문과 스마트폰 부문으로 나눠 실시되며, 1인당 3편 이내로 한정된다.

사진 작품은 해상도가 가로 2560×세로 1920 픽셀 이상의 JPG파일로 응모해야 한다. 접수는 문화재 멀티미디어 사이트인 헤리티지채널 홈페이지(www. heritagechannel.tv)나 문화유산 공모전 앱을 내려 받아 응모 가능하다.

수상작은 심사를 거쳐 10월30일 헤리티지채널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될 예정이며, 디지털카메라 부문과 스마트폰 부문 각각 대상 1편, 금상 2편, 은상 3편, 동상 9편, 입선 10편 등 총 50편을 선정하며, 총 1000만원의 상금이 주어진다.

문화재청은 "이번 사진 공모전을 통해 우리 문화유산 사진 콘텐츠의 가치와 문화유산 애호의식 향상을 위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에 기여하고, 우수한 사진 자료를 기록으로 보존하여 국민들에게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노덕현 기자

# 내가 직접 만드는 나만의 108염주

나를 위해 만든 108염주의 공덕도 크지만 남을 위해 만든 공덕은 무량합니다. 시방법계에 부처님 법을 전하고 회향하는 큰 실천이 시작됩니다.

**본 수행은 다음과 같은 좋은 인연이 만들어 지게 됩니다.**

- ☞ 일심으로 참회의 절을 부처님께 올리며 그 정성이 담긴 한알 한알의 염주를 한번 질할 때마다 한 알씩 깨어 자신의 마음을 밝히는 '108염주만들기' 수행은 몸과 마음을 바르게 하고 망상과 괴로움에서 벗어나고자 내딛었던 길, 불자들이 중생을 모두 해탈의 길로 인도하겠다는 큰 서원은 아닐지

라도 정성스레 마음의 향을 사르며 그 동안 알게 모르게 지은 죄업을 참회하며 청정심 내어 달라고 부처님께 발원합니다.

☞ 그동안 자신의 안위만을 생각하며 살아왔던 삶을 '108염주만들기' 수행을 계기로 타인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삶을 살겠다고 마음먹기 시작하고 108염주가 만들어지면 내가 아닌 다른 이의 목에 걸어 주겠다는 마음가짐을 다짐합니다.

☞ 이 인연을 통하여 시방법계에 회향하며 마지막 인내의 힘을 다해 절을 올리고 염주를 꿸 때 되면 염장은 멀하고 공덕이 녹아 든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108염주가 되는 것입니다.

☞ 본인 스스로 만든 염주를 부처님 앞에 일주일 또는 보름간 모신 후 가져가시면 더욱 불심이 돈독하게 됩니다.

### 108염주 만들기 순서

**1** 염주세트키트: 108염주 (10mm) 마강염주 12개(12mm) 모주 1개(12mm) 줄삼색, 코핀1개, 펜던트, 이부사계

**2** 염주 하나하나를 줄에 끼웁니다. 가끔 구멍이 막혔을 염주는 준비물 중 이부사계로 해결합니다

**3** 108개의 염주가 다 끼워졌으면 모주구멍이3개 양쪽으로 줄을 교차시켜 모아 줍니다.

**4** 수직으로 나와있는 모주의 구멍에 코핀을 이용하여 두개의 줄을 빼냅니다.

**5** 끝부분까지 빼냈으면 3회 정도 힘껏 매듭을 합니다. 매듭부분이 모주구멍으로 들어가게 합니다.

**6** 모주로부터 나온 두 줄을 마강염주 줄로 통과시킵니다.

**7** 마강염주 염주를 통과 시킨 두 줄에 펜던트를 끼워서 다시 마강염주 줄로 통과시키면 됩니다.

**8** 이때 펜던트와 마강염주 염주 사이에 3mm정도 남겨두고 모주와 마강염주 사이는 5mm정도 남겨둡니다.

**9** 두 줄로 2회 뒤로 가법계 매듭을 만듭니다.

**10** 다시 매듭을 3번 힘껏 조이면 됩니다.

**11** 가위로 2mm정도 남겨두고 자른 후 라이더로 살짝 지지서 손으로 가볍게 눌러줍니다.

**12** 108염주 완성  
 서울신안문화출판 20-2011-0003692  
 20-2011-0004471  
 20-2011-0005656

다함 카페 | 108염주만들기운동본부

현대불교신문 108염주만들기 운동본부

서울 종로구 수송동 46-21 수송빌딩 2층 | 문의: 02)2004-8214 (농협 053-01-269062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